

#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5년 12월 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현안

### 「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힘.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 ▲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 강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차별금지 규정 제정, ▲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지원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확립함.

####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12.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725](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725)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12월 1일(월),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지난해보다 469곳 늘어난 총 6,971곳으로 밝힘.

-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를 돕기 위해 출산·육아 친화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총 11개 중소기업이 예비인증을 받음.

#### 〈가족친화인증 현황〉

연도	2008(최초)	2013	2018	2023	2024	2025
계	14개	522개	3,328개	5,911개	6,502개	6,971개

-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유지한 31개 기업이 올해 '가족친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됨.

####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12.0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718](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718)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 법무부는 12월 3일(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짐.
- 더불어,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03.]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jAxMTQzJTJGYXJ0Y2xWaVw3LmRvJTN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12cmdzRW5kZGVtdHl1MQIMjZpc1ZpZXdnYW5lJTNEZmFsc2UIMjZwYV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12c3JjaFdyZCUzRCUyNg%3D%3D>

##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ikms.assembly.go.kr/bill/bi/bill/state/mooringBillPage.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저출생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6인)	2025. 12. 04.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함(안 제12조의2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2025. 12. 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2025. 12. 11.	직무상 비밀분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영구의원 등 13인)	2025. 12. 11.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1조제4항 신설).
여성고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의원 등 10인)	2025. 12. 03.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함(안 제19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의원 등 10인)	2025. 12. 04.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 12. 10.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젠더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5. 11. 28.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이 인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2025. 12. 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등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3항). 또한 고위공직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조직적 은폐·압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2025. 12. 15.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 시 지역사회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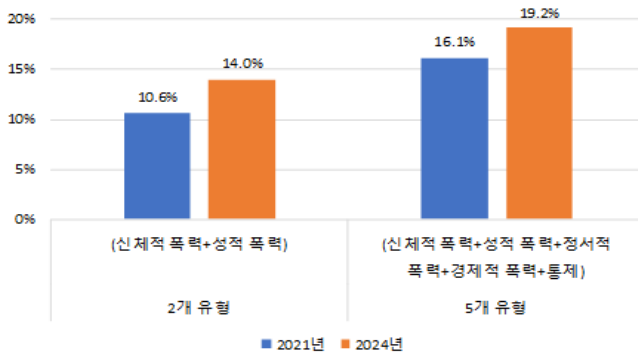
##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도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주요 통계 분석 결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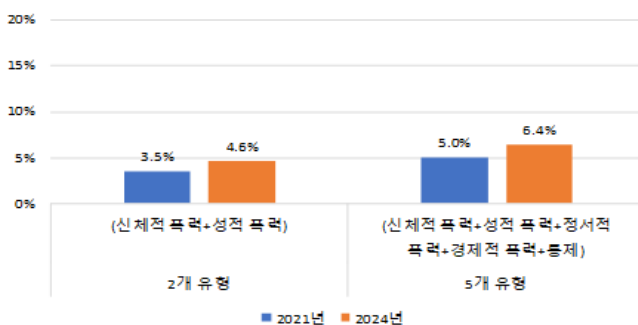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5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과제를 발표함.

-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실태와 변화: 2024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통제(5개 유형)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로, 2021년 16.1%에 비해 3.1%p 증가



[그림 1] 평생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경험률 (2021년, 2024년)

- 교제폭력 피해 실태: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경험률도 증가함. 평생 교제폭력 피해율은 2024년 6.4%로, 2021년(5.0%)과 비교해 1.4%p 증가함.



[그림 2] 평생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 (2021년, 2024년)

####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25.12.01.]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352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2월 4일(목),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함.

- 이번 학술대회는 패널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연구성과를 널리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올해 학술대회는 크게 9개의 세션과 해외 초청강연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제발표와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됨.
- 주요 연구 결과로는 ▲ 출산의향, 가치관 아닌 '노동 지속 가능성'이 결정 ▲ 가사 내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감소 한계 ▲ 저출생 대응 위해 사회문화적 조건 개선과 성평등 인식 확산이 핵심 과제 등이 논의 됨.

##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25.12.03.]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3534>

##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행사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젠더리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향후 과제	25.12.01.	동아일보	여성 5명 중 1명 “배우자·연인 등에게서 폭력 경험했다”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01/132875368/1">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01/132875368/1</a>
		MBC뉴스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여성 5명 중 1명 경험한다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0807_36718.html">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0807_36718.html</a>
		한겨레	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경험했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216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2163.html</a>
		중앙일보	여성 5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피해자 20대女 가장 많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529">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529</a>
	연합뉴스	여성 5명중 1명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 폭력 경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201073000530?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51201073000530?input=1195m</a>	
	25.12.03.	여성신문	친밀관계폭력...40~60대 여성 피해 두드러져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24">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24</a>
젠더리뷰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25.12.01.	경향신문	불법촬영 1031건 저질렀는데 ‘전과 없어’ 감형?...“디지털 성범죄 양형 이유 개선해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11519001">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11519001</a>
젠더리뷰 -온라인상의 성적 위험과 플랫폼 제재의 한계	25.12.03.	한국경제	“청소년 청년 10명 중 3명 온라인서 ‘성적 대화’ 경험해”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313817">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313817</a>
2025 경기여성 국제포럼	25.12.02.	중부일보	“여성의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 만드는 핵심 요소”	<a href="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10635">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10635</a>
	25.12.03.	여성신문	“여성 교육권 박탈, 성폭력 못지않아... 한국, AI 성차별 대응해야”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09">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09</a>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위한 정책 포럼	25.12.03.	뉴스핌	성평등가족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위한 정책 포럼 개최	<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0300009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03000094</a>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	25.12.04.	연합뉴스	“여성 출산 의향, 가치관 아닌 출산 후 노동 지속가능성이 영향”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203159700530?input=1195m">https://www.yna.co.kr/view/ AKR20251203159700530?input=1195m</a>
		MBN	“여성 출산 의향, 직장생활 유지 여부가 영향”	<a href="https://www.mbn.co.kr/news/society/5159373">https://www.mbn.co.kr/news/ society/5159373</a>
		아시아 투데이	여성 고용률·소득, 출산 후 급락… 10년 지나도 회복 안 돼	<a href="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4010002252">https://www.asiatoday.co.kr/kn/view. php?key=20251204010002252</a>
	25.12.05.	중앙일보	‘다시 일 할 수 있을까요’ 출산 거부한 여성들의 진짜 이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7639">https://www.joongang.co.kr/ article/25387639</a>
		이데일리	“유연근무 확대되도 여성 가사노동 못 줄여… 돌봄 지원 필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6200664239556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3362006642395568&amp; mediaCodeNo=257&amp;OutLnkChk=Y</a>
인구 통계적 변화 속 돌봄 시스템 전환 워크숍	25.12.04.	여성신문	유엔여성기구, ‘성평등·포용적 돌봄 시스템’ 미래 전략 논의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14">https://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70514</a>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25.12.05.	여성신문	금융권 성별임금격차 30.7%… “성평등임금공시제, 이제는 의무화해야”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55">https://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70555</a>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	25.12.11.	뉴스온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 개최…“국민 목소리에서 통합의 길 찾는다”	<a href="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465">https://www.sisaon.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78465</a>